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기준성 · 김민수 · 최민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 4.1 관계도 분석
 - 4.2 연관어 분석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Ki, jun-sung, Kim, min-su, Choi, min-ji. 2021. 7. 1. **A Study on Changes in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COVID-19 Er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8, 29-57.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s in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big-data analytics of news article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discussed policy support measures that would help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based on online news articles to analyze the

perceptual changes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the COVID-19 era and employed a news big-data analysis system called “BIGKinds” to collect news articles. As a search term, “multicultural family” was used, and online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9 and 2020 were collected to compar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The analysis of related keywords to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ppeared in the 2020 news articles revealed that negative related keywords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published in 2019, the pre-pandemic period.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support measur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era of the pandemic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se famil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laws in news reports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remedy the situation.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social networks centered on areas where multicultural families reside, which can lead to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disaster-related public services.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BIGKinds,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COVID-19 pandemic, news big data, social networks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 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자와 결혼귀화자도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이에 2021년 3월 기준 외국인 체류자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총수는 231만 1,868명에 이르게 되었

다.1) 이는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4.5%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2)

한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도 좀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다(최지혜·조민효, 2020).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더믹(Pandemic)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은 재난 약자로 불리며,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재난 약자로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과 맞물려 소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3)

코로나 속에서 심화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4) 그리고 이는 중국에 다문화 시대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BIG KINDS) 뉴스 빅데이터 분석

* 이 연구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기준성, 공동 저자: 김민수, 최민지

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1년 3월호 참고.

2)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여러 문화 집단들이 공존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OECD, 2020, 장신재 2020: 76에서 재인용).

3) 이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이민자와 국민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4)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부정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을 말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기능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적·문화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이 연구는 코로나 시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와 외국인 차별·혐오에 관한 연구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박정의·윤성태·성지연, 2020; 서종건·양성욱, 2021 등)에서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 지배 성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의·윤성태·성지연, 2020). 최지혜·조민효(2020)에서도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공포나 무지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반적 다문화 수용성의 저하와 더불어 현행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서종건·양성욱, 2021).

장신재(2020)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개인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였고, 최지혜·조민효(2020)

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감정적·호소적 접근 대신 다문화사회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서종건·양성욱(2021)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 구성과 다문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 차별·혐오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20 가; 국가인권위원회, 2020 나; 김수경, 2020)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20 가)에서는 무선 모바일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 대상을 총 14개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⁵⁾ 외국인·이주민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4.4%)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나 2순위로 선택한 사람을 합산하면 36.5%로 14개 집단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2020 나)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혐오 및 차별과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를 탐색하였는데, 코로나 확산 시기 인종 차별 언급량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수경(2020)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이념적으로 정치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 혐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종주의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2020 가)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부 차원 종합적 대책 수립, 인권·다양성 존중 학교 교육 확대, 국민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인권위 등 차별 시정 기구의 혐오 차별 규제 강화, 악의적 차별에

5) 국가인권위원회(2020 나: 12)에서는 차별 대상을 ① 여성, ② 남성, ③ 성소수자, ④ 종교인, ⑤ 장애인, ⑥ 질환이 있는 사람, ⑦ 가난한 사람, ⑧ 특정지역출신, ⑨ 외국인·이주민, ⑩ 아동, ⑪ 청년, ⑫ 노인, ⑬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⑭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한 형사 처벌, 정치인·언론의 혐오 조장 규제를 제시하였다.⁶⁾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2020 나)에서는 정부와 언론의 입장 표명·캠페인⁷⁾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의견 게시 등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부정적인 발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 전종미·한은주, 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은 증대하였는데 오히려 행·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어려움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수정·마경희·윤성은(2020)에서는 다문화 가족은 재난 상황에서 서비스 일시 또는 전면 중단에 직면하였다고 하였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의 휴교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겼고,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자원이 부족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전종미·한은주(2020)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증대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에서는 대상자 맞춤형 혼합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포용적 정책 개발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돌봄 지원 사업의 강화와 확대를 제안하였고, 전종미·한은주(2020)에서는 비대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 방법 그리고 시공

6) 국가인권위원회(2020 가)에서는 이 정책들에 관해 찬반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대상자는 모든 정책에 관해 찬성 우위의 응답(찬성률 87.2%~91.5%)을 하였다. 그런데 ‘정부 차원 종합적 대책 수립’이 최하 비율 응답, ‘국민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이 최고 비율 응답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조사 대상자는 하향식 인식 개선보다는 상향식 인식 개선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정부의 입장 표명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혐오 차별 중지 및 인류애와 연대 강조와 코로나19 보도 준칙 배포(혐오 차별 조장 자제 등)가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나: 59).

간의 제약을 벗어난 획기적인 가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⁸⁾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이 감소하고 외국인 차별·혐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여러 논의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외국인 차별·혐오 개선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전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대조한 연구는 드물고,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래에 제시한 연구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 시대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전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코로나19 발생 전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 기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코로나 시대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8) 전종미·한은주(2020)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 Zoom 활용 온택트(In-tact) 방식의 가족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가족 서비스, Live 생중계를 활용한 가족 서비스, 사회적 거리 두기 이벤트, 미션 참여형 가족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를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뉴스는 사회 현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기록하고 보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객관적 시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기사 수집을 위해 뉴스 빅데이터(Big data)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활용하고자 한다.⁹⁾ 빅데이터는 성장하는 동적 자료(박대민·오세옥, 2016; 남복희, 2018에서 재인용)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뉴스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뉴스 빅데이터'인데, 이러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앞서 언급한 '빅카인즈'이다. 빅카인즈는 뉴스수집시스템, 분석시스템, 저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된 뉴스 분석 정보는 언론사를 비롯하여 학계 등 각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빅카인즈를 이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 기사 수집 시기는 코로나19 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인 201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각 1년(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상세 검색조건으로 언론사는 국내 중앙지¹⁰⁾ 11개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을 표제어나 본문에 포함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19년은 총 958개, 2020년은 총 698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검색 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관계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¹¹⁾을 시행하였다.

9) 빅 카인즈(Big kinds)는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출범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과 같은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10)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총 11개의 신문사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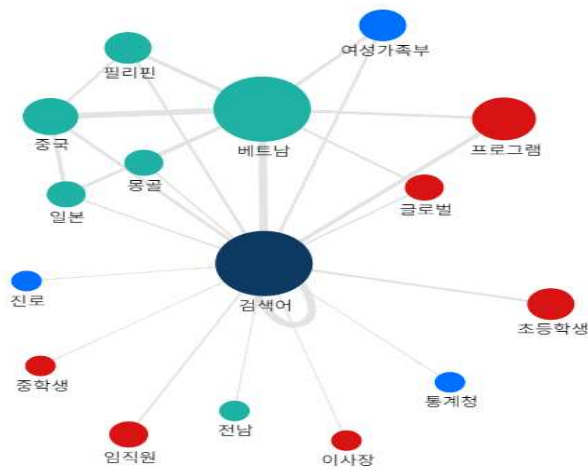
11) 연관어 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석 뉴스 건수를 각 100, 300, 500, 1000건으로 설정이 필요하여 2019년과 2020년 분석 기사 건수를 각각 동일

4. 분석 결과

4.1. 관계도 분석

빅카인즈 데이터 분석에는 ‘관계도 분석’이 있는데 관계도 분석에서는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에서 추출한¹²⁾ 개체명(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과 검색어인 ‘다문화 가정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4.1.1. 2019년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그림 1 2019년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하계 500건으로 설정하였다.

12)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먼저 명사 상당 어구를 추출한 뒤 추출된 것을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의 관련 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위의 <그림 1>은 2019년 뉴스 중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개체명(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을 가중치¹³⁾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검색어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키워드 중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는 프로그램과 글로벌,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사와 관련된 키워드로 ‘<서울 인사이드>한글·요리교실서 취업훈련까지… ‘한국생활 완벽적응’ 돕는다’ (문화일보, 2019.10.14.), ‘ “다문화가정에 편견 없어요” ...티브로드 ‘다가감 ‘프로그램’ (문화일보, 2019.08.05.) 등과 같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초등학생’ 과 ‘중학생’ 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2% 넘었다’ (경향신문, 2019.05.01.), ‘내·외국인 모두 행복한 구로구, 다문화 멘토-멘티 사업 펼친다.’ (국민일보, 2019.08.20.) 등의 기사가 해당되며 ‘전남교육청, 다문화 학생 실태파악 조차 안 돼 ‘빈축’ (서울신문, 2019.03.19.)’ 등의 부정적 내용의 기사도 존재했다.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은 임직원, 이사장 등의 키워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희망의 무지개’ 띄운다’ (동아일보, 2019.12.13.), ‘형편 어려운 성적 우수학생 5020명에 장학금’ (동아일보, 2019.04.01.)과 같이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부, 봉사와 관련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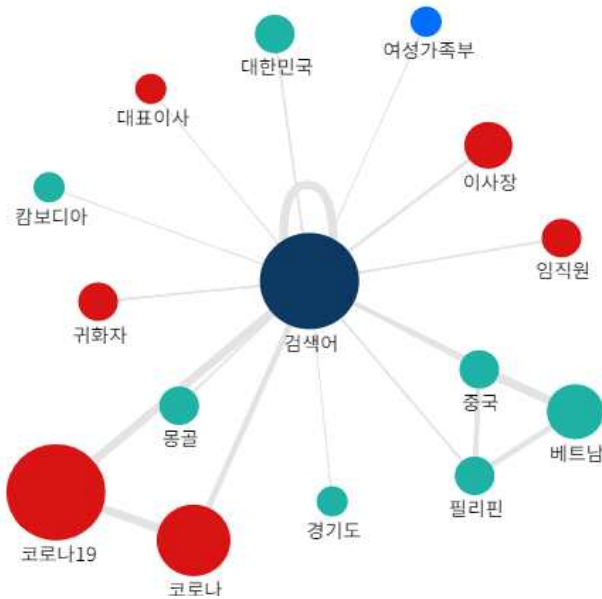
한편 검색어,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3) 관계도 분석을 할 때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필터 종류에는 ‘가중치 구조 타입’과 ‘가중치’가 있다. ‘가중치 구조 타입’을 사용할 경우 매체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가중치(관련기사 건수)’ 필터 설정 시 관련기사 건수에 따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관련기사 건수)를 6으로 설정하여 필터로 사용하였다.

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기사로는 ‘결혼이주여성 보호대책 마련...국내 체류 ‘선허가 후조사’ (동아일보, 2019.11.2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참가 모집’ (내일신문, 2019.05.21.) 등 여가부의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는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비교적 일상적인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2020년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그림 2 2020년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위의 <그림 2>는 2020년 뉴스 중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개체명(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을 가중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검색어와 관련하여 가중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코로나

19와 코로나로 나타나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 가정에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기사로는 ‘[사설]온라인 개학, 교사 역량과 부모 돌봄에만 기대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20.04.06.) 등의 글이 있었는데 이 사설에는 “다문화가정처럼 온라인서 소외된 계층이라면 기기를 나눠준다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가정은 (온라인)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청 “코로나19 예방 위한 등교 안내 가정통신문 7개 언어 번역 지원’ (경향신문, 2020.06.01.)과 같은 기사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기사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 교육청’이라는 지역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기사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그 외에도 대표이사, 임직원, 이사장 등과 같은 키워드도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시대에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기부와 봉사 관련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KB국민카드,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지원’ (내일신문, 2020.03.05.)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 수입이 불안정해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아동센터 휴관 등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급식도 원활치 않은 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검색어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가 포함되어 있다.

14) 2020년 기준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충북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21년 2월에 발표한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2021)에 따르면 현장 수요조사를 통한 ‘다국어 학교 가정통신문’ 제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기사로는 ‘구로구, 다문화가정 사회정착에 공로 여가부 장관상 수상’ (문화일보, 2020.03.03.), ‘하나금융 ‘다문화가정대상’ 베트남 출신 윤아영 씨 수상’ (문화일보, 2020.07.15.) 등 수상(受賞)과 관련된 기사들이 노출되어 여성가족부의 코로나 시대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된 뉴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어와 관련된 장소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이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회 구성원들의 국적을 나타내기 위한 기사문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4.1.3. 2019 · 2020년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결과

아래의 <표 1>은 코로나 전후(2019: 2020)의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결과 나타난 키워드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2019, 2020 관계도 키워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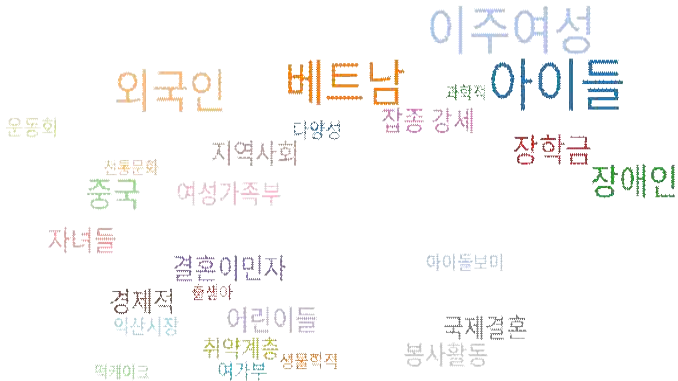
	2019년 관계도 키워드	2020년 관계도 키워드
1	베트남	코로나19
2	프로그램	코로나
3	중국	베트남
4	여성가족부	이사장
5	필리핀, 초등학생	중국
6	일본	임직원
7	글로벌, 임직원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귀화자
8	몽골	경기도, 캄보디아, 여성가족부, 대표이사
9	통계청, 이사장	

2019년 관계도 키워드와 2020년 관계도 키워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2020년 키워드의 1, 2위에 해당하는 ‘코로나’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0년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네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였으나 2020년에는 8위로 밀려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분석 결과 중 하나로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등을 따져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자료로(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4.2.1. 2019년 연관어 분석



<그림 3 2019년 ‘다문화 가정’ 연관어 분석>

2020년의 연관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가장 큰 키워드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문화 가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등이 포함된다. 2020년에는 국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문화 가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에 비해 부정적 의미의 연관어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라는 연관어는 2019년에도 나타나지만 그 크기가 확대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사회적 거리 등과 같은 부정적 어휘도 2020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가족 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족 형태가 2020년에 키워드로 새로이 등장한 것도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4.2.3. ‘다문화 가정’ 연관어 분석 결과

아래의 <표 2>는 2019년과 2020년 ‘다문화 가정’ 연관어 키워드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2019, 2020 ‘다문화 가정’ 연관어 키워드 순위>

	2019 연관어 키워드 순위			2020 연관어 키워드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빈도수
1	아이들	27.84	272	코로나19	32.64	471
2	이주여성	25.74	393	아이들	28.79	274
3	베트남	24.44	259	장애인	24.37	139
4	외국인	22.24	384	외국인	20.74	344
5	장애인	15.35	75	저소득	19.95	124
6	중국	14.86	186	취약계층	18.81	143
7	장학금	13.52	93	원격수업	16.8	95
8	자녀들	11.43	89	한부모	14.02	89
9	결혼이민자	11.1	86	조손	14.02	59
10	어린이들	10.96	47	지역사회	13.53	133
11	경제적	10.64	61	지역아동센터	13.09	77
12	지역사회	10.43	94	온라인 개학	12.94	98
13	잡종 강세	10.41	21	맞벌이	12.31	57
14	여성가족부	10.21	83	교육부	9.4	122
15	국제결혼	9.93	58	학부모들	8.89	33
16	봉사활동	9.92	81	여성가족부	8.63	40
17	취약계층	8.43	53	베트남	8	166
18	운동회	6.92	29	이사장	8	73
19	여가부	6.4	82	우리나라	8	63
20	익산시장	6.4	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62	65
21	다양성	6.22	45	사회공헌 활동	7.33	38
22	아이돌보미	5.6	111	아동복지	6.39	66
23	생물학적	5.04	17	사회적 거리	5.74	39
24	전통문화	4.8	10	신혼부부	5.6	10
25	과학적	4.36	23	소년소녀가장	5.52	8
26	떡케이크	4.36	5	경기도	5.42	158
27	출생아	4.19	56	중국	5.42	105
28				가족들	5.19	35
29				국제결혼	5.09	65
30				입양복지	4.88	8
31				홀트아동복지회	4.5	37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2020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코로나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키워드 1위였던 ‘아이들’ 은 2020년에도 2위를 차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다문화 자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에는 17위에 머무른 ‘취약계층’ 이라는 키워드가 2020년에는 6위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저소득’ 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며 5위에 올랐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에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2020년 키워드 7위인 ‘원격수업’ 또한 코로나 시대에 겪게 되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4장에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결과 현재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대부분의 키워드는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는 이주민이 아닌 원주민들에게도 최대 이슈이지만, 2장의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제적 도움과 관련된 키워드는 찾기 힘들었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과 부정적 인식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1장에서 설정한 연구 문체에 따라 5장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또 휴업이나 휴직, 출근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 등을 수행하는 곳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표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1-4항의 내용 중 일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김수정·마경희·윤성은(2020)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국내 발병 이후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¹⁵⁾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여러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만이 아닌 모든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4장의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2020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연관어가 다수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저소득’이 새로운 연관어로

15) 김수정·마경희·윤성은(2020)에서는 센터장 10명의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로 인한 가정지원의 어려움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등장하였고, ‘취약 계층’은 2019년에도 있었지만 2020년에 그 크기가 커졌다. 재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이 일반 원주민 가정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나 국적 등의 특수성으로 자칫 지원 정책에서 멀어지기 쉬운 이민자, 다문화 가정이 재난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다문화 가정은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가족 간 대화 증진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논한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가족 갈등 심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 상담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강주현 2020). 대면 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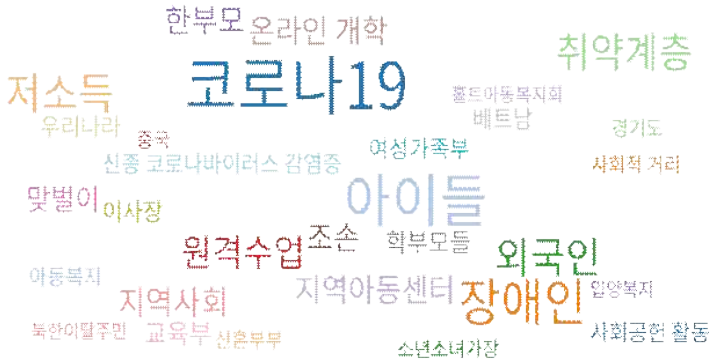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주민 본인뿐 아니라 원주민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후속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이 이루어진 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지내는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주민에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위한 후속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¹⁶⁾

또한 인터넷이나 화상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나 안내도 중요하다.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고 전화만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한국어가 미숙할 경우 소통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화상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화상 프로그램과 상담 기회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IT 기기 지원이나 사용법 안내 등을 병행해야 한다.¹⁷⁾

16) 윤향희·김경제(2016), 김민수(2019) 등에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다문화 배경의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수업 플랫폼 사용 안내와 원격 한국어 수업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해야 한다.¹⁷⁾ 원활한 학업 수행은 곧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연결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뉴스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4장에서 확인한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 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문화 가정 관련 기사에서 취약 계층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이전보다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2020년 ‘다문화 가정’ 연관어 분석>

17) 전종미·한은주(2020)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행해지는 경우 디지털 매체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것을 지적하였고, 강주현(2020)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이 필요한 IT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였다.

18) 2021년 2월에 발표한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2021)에 이미 다문화 학생 원격 수업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일반 교과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 가정’ 연관어에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키워드가 등장하는 기사라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며, 뉴스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기사 작성자의 다문화 수용성이나 균형적 시각이 부족하다면 자칫 부정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보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제기된 문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4 결혼이민자 관련 뉴스 보도의 문제점19>

문제 유형	세부 내용
동화주의적·온정주의적 시선	-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동화·통합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사회에 동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선)
선주민 관점의 보도	- 자신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이 아니라 반응자의 역할로 등장. - 한국인을 인터뷰한 횟수가 결혼이민자를 인터뷰한 횟수와 비슷함
문화적 편견을 부추김	- 가정 학대, 시부모와의 갈등 등 부정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한다. - 이주로 인한 혼란을 겪는 대상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보도함

19)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의 표4-1(결혼이민자 보도 유형과 주요 특징)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김민수(2020)에서 재인용.

뉴스 보도는 원주민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이주민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TV와 인터넷 등의 뉴스 보도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 거리감, 차별 의식 등이 형성된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도 있다(박미화, 김솔 2017).²⁰⁾

선행 연구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인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역시도 뉴스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서 다문화 가정을 재현하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인터뷰에서 결혼이민자들은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가족의 부정적인 재현이 반복되면 왜곡된 인식, 그로 인한 차별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지금과 같이 다문화 가정이 미디어에서 재난 약자로 묘사되기 쉬운 시기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들의 공정성과 중립적인 시각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단순히 공정성에 대한 강조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다문화와 관련한 보도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관련 뉴스의 생산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주민들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금도 한국 원주민들의 경우 시민들의 뉴스 제보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들도 다문화 뉴스의 당사자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언론계,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의 언론 참여에 대한 당장의 제도화는 어렵더라도, SNS 등을 통해 이주민에게서 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주민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재난 관련 서비스 인지율을 높일 것이다. 코로나 시

20) 이 연구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뉴스, 댓글을 분석하여 그들에 대한 혐오증을 분석하였다.

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코로나 관련 알림 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은 익숙하다. 만약 한국어로만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문자를 받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재난 대처와 안전, 건강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영어·중국어로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고 있다.²¹⁾ 영어와 중국어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려면 emergency ready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5월 현재 emergency ready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만도 채 되지 않는다.²²⁾ 200만이 넘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3%에 불과한 것이다. 재난 알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므로 이용자들의 인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앱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인지율 문제를 중앙 정부가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긴급재난문자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두려면,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과 잘 연결되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부처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이민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사회 변화에 빠르

21)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곧바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22) 누적 다운로드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수가 '1만 이상'으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최소 1만 이상 최대 10만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23) 지역 사회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중 하나이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심리적 도움, 구직 활동에서의 정보 획득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준다(이혜수·김세현, 2020).

게 대처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였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지역자치단체와 그 주민들 중심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여야 한다.²⁴⁾

예를 들어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공생 정책이라고 불리는 데, 지역 내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표 5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주요 내용²⁵⁾>

다문화공생 정책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	<생활 지원 정책>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
이주민들이 생활정보, 행정서비스를 다양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주민의 거주와 교육, 복지, 의료 지원 등 생활을 돌보는 정책.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자체-지역국제화협회, 각종 NGO 등이 수시로 연대 협력하며 이주민의 참여 유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부분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유사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인데, 지역에서 이주민에게 자국 문화 소개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처럼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민과 원주민이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면 각종 다문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24)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김현진(2020)에서도,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중앙 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주민이 실제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25) (김찬동, 2017)을 참조하여 재구성, 김민수(2019)에서 재인용.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언론 보도의 개선 방안, 지역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은 각각 다른 분야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 관련된 제 분야의 협력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 관계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각 지역자체단체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코로나 팬데믹은 다문화 사회의 위기가 아니라 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현(2020).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변화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7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9쪽~40쪽.
- 교육부(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20가).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20나).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 김민수(2019).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문화와 융합> 41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1025쪽~1054쪽.
- 김민수(2020). 결혼이민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 연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13쪽~235쪽.
- 김수경(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제14집 1호, 성결대학

- 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2쪽~43쪽.
- 김수정·마경희·윤성은(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 - 센터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8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45쪽~271쪽.
- 김찬동(2017).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해외 다문화정책 사례, <地方行政> 66권 768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2쪽~13쪽.
- 김현진(2020). 프랑스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6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47쪽~72쪽.
- 남복희(2018).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대민·오세욱(2016). 방송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가능성,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미화·김술(2017).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1집 3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92쪽~117쪽.
- 박정의·윤성태·성지연(2020). 사회지배 성향과 다문화 수용성: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4집 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60쪽~183쪽.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 서종건·양성욱(2021).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의 관계: 관계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2권 1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87쪽~1300쪽.
- 윤향희·김경제(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20호, 유럽헌법학회. 353쪽~388쪽.

- 이혜수·김세현(2020).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기기 활용과 사회적응 : 연령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801쪽~825쪽.
- 장신재(2020).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연구> 제12권 2호, 한국다문화복지학회. 75쪽~92쪽.
- 전종미·한은주(2020). 코로나19 시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운영현황 및 과제-G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3쪽~204쪽.
- 최지혜·조민호(2020).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_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EAI 워킹페이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1쪽~27쪽.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2018 다문화가족 미디어이용 실태조사.
-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필자 소개

성 명 : 기준성

소 속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조교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7길 60 [우편번호]03645

전화번호 : 02-2287-0205

전자우편 : z3230699@scau.ac.kr

성 명 : 김민수
소 속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강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33 [우편번호]03086
전화번호 : 02-764-7825
전자우편 : 1013min@naver.com

성 명 : 최민지
소 속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강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33 [우편번호]03086
전화번호 : 02-764-7825
전자우편 : aaaaaa0113@naver.com

투고일: 2021. 7. 1 / 심사일: 2021. 7. 30 / 심사완료일: 2021. 8. 18